

헝가리, 최근 경제동향 및 교역현황

<표 1> 동부유럽 4개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2007년 기준)

(금액단위: 억 달러,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GDP	4,238	1,340	1,712	1,639
인구(백만 명)	38.1	10.0	10.2	21.6
1인당 GDP	11,123	13,400	16,784	7,588
경제성장률	6.5	1.7	6.0	5.8
실업률	12.8	7.4	6.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2.5	8.0	2.9	4.8
재정수지/GDP	△1.4	△5.6	△2.5	△2.5
상품수출	1,455	899	1,184	394
상품수입	1,576	886	1,145	641
경상수지/GDP	△3.6	△5.5	△3.7	△14.2
총외채잔액	1,686	1,131	701	722
환율(연평균, 달러)	2.77	183.6	20.29	2.44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2008.

1. 경제동향 및 전망

<표 2> 헝가리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06	2007	2008f
경제성장률	3.9	1.7	2.8
소비자물가상승률	4.3	8.0	4.7
재정수지/GDP	△9.4	△5.6	△4.1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1) 경제성장

- 1990년 체제전환 정권은 헝가리민주포럼(MDF)에 의해 1991년 3월 대외무역 및 가격 자유화, 보조금 감축 및 민간부문의 포지션 개선 등을 포함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구소 블록무역의 붕괴와 동 개혁의 여파로 오히려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은 저하되었으며 실업률은 상승하였음.

- 1997-2000년에는 제조업 수출증대에 힘입어 연평균 4.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EU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부진으로 헝가리의 수출산업이 위축되면서 헝가리 경제는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악화의 "twin deficits" 문제에 직면하게 됨.
- 1990-01년의 경기침체, 1995-96년의 긴축정책 시행, 1999-2001년의 러시아 재정위기 등으로 고정투자자는 위축되었으나, 1997-98년에는 민영화 추진으로 고정투자자는 일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2002년 이후 정부 주도하에 도로건설 등 인프라투자가 늘면서 고정투자증가율은 강세를 나타냄.
- 2007년에는 가처분소득 감소, 경기 악화 및 개인채무 누적 등으로 민간소비자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더욱 둔화됨. 수출산업을 제외한 내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조세납부 부담과 내수 위축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기업 수익성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헝가리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통제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국통화의 환율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외환·금융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08년에는 유로존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서부유럽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헝가리로 이전하여 글로벌(유럽) 공급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EU 회원국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으로 분석됨.

## (2) 소비자물가

- 2000년 들어 국제유가 및 식료품 제조비용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의 공급측면에 대한 충격의 결과로 동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8% 수준이었음. 2001-03년에는 농산물 및 수입연료 가격 하락, 통화 강세에 힘입어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급격히 진정됨.
- 2004년 상반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급락하였으며, 2005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나타냄.

- 200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화당국이 설정한 억제 목표치인 4%±1pp 범위 내의 3.6%를 기록함. 이는 최근 긴축통화정책 시행, 노동생산성 향상, 완만한 실질 임금상승률,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박 등이 작용한 결과임.
- 2006년 1월부터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25%에서 20%로 인하되었지만 통화 가치하락,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2007년에는 식료품(11.5%), 연료 및 전기요금(24.6%) 가격 상승으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에 달하였음. 그러나 2008년에는 조세인상 조치(2006.9)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는 상승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3) 재정상황

- 체제전환 직후인 1991-94년 중 헝가리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실패로 재정수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동 기간 중 재정수지는 GDP 대비 5.7-6.7%에 달하였음.
- 2002년 5월 정권을 다시 장악한 헝가리사회당(MSZP)은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post-Bokros"를 주창함. 이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개인소득세 폐지,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최대 50%의 급료 인상 등의 조치로 2002년 재정수지는 1.6조 Forint(63억 달러, GDP의 9.7%)로 최대 적자를 기록함.
- 헝가리는 EU 가입 이후 역내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수립과 인프라 등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을 EU 기금을 통한 이전수입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EU 경상이전과 관련한 EU로부터의 자금유입이 헝가리 재정수입에 순수하게 연계되는 지원항목은 적는데 반해, 대부분 구조·결속기금, 쉥겐협약(Schengen Facility) 및 EU 가입이전(Pre-accession)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 사업에 직접 투입됨.
- 재정수지 적자누적으로 2010년의 유로화 도입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EMU 추진 전제조건<sup>1)</sup>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화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됨.

1) 2010년을 기준으로 2년 전에 해당하는 2008년에 재정수지가 GDP 대비 3% 미만인 되어야 하고, 정부채무도 GDP 대비 60% 이내로 억제되어야 함.

- 2004년에는 재정지출 억제 및 연금개혁 관련 비용지출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5.5% 적자를 기록해 전년의 6.2%보다는 그 적자비중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GDP 대비 5%를 상회하고 있어 마스트리히트 수렴조건(Maastricht Convergence Criteria)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임.
- 헝가리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여 "twin deficits" 문제를 안고 있으며, 누적되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헝가리 정부에 대하여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부정적임.
- 헝가리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Forint 가치급락을 가져와 외환·금융위기(financial crisis)를 초래할 가능성 잠재

## 2. 교역현황

<표 3> 헝가리 주요 대외거래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f
상 품 수 출	74,215	89,868	102,184
상 품 수 입	75,380	88,623	101,380
대외지급준비자산	21,590	24,707	27,935
경상수지/GDP	△6.5	△5.5	△6.0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 헝가리의 대외무역은 1991년부터 서부유럽으로 재편되었는데, 2004년 기준으로 헝가리 총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이고 수입은 71%에 달함. 국가별로는 독일이 최대 교역국으로 2004년 통계에 의하면, 헝가리 수출의 30.4%, 수입의 28.6%이며, 러시아는 석유·가스 수입의 80%를 차지함.
- 헝가리는 소규모 개방경제권으로 2004년 기준 무역규모가 GDP 대비 130%에 달함. 급속한 체제 전환은 수출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데, 품목별 수출비중은 기계류 및 설비 60%, 전기제품 25%로 확대됨에 따라 원자재 및 반가공품의 수입비중도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함.
- 헝가리는 EU에 가입하면서 공동대외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EU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 시 대부분의 경우 종전보다 낮은 관세율(평균 6.9 → 3.6%)을 적용하게 됨.

- 2004년도에는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81%(EU 가입 이전인 동년 1-4월, 36% 증가) 증가하였고 이중 80% 이상은 기계류임. EU 가입 이전에는 기존 EU 회원국을 거친 우회수입이 주된 수입경로임.
- 2007년에는 국내산업 생산의 높은 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 호조로 상품수지는 호전되었으나, 2008년에는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 회복이 기업 투자 및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수입규모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헝가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중  
(2006년 기준)**

수출상대국	독일(29.4%), 이탈리아(5.5%), 오스트리아(4.8%)
수입상대국	독일(27.4%), 러시아(8.2%), 오스트리아(6.2%)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8.

- 1995년에는 Forint의 가치하락 및 환율 변동폭 축소 등에 관한 crawling-peg 제도가 도입된 이후 통화가치 하락비율이 축소되고 통화의 평가절상 효과가 나타났지만 실제로 대외경쟁력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 인플레이 진정과 통화가치 강제로 헝가리는 긴축재정정책과는 달리 확대통화정책을 취하여 왔으며, 2001년 5월에는 환율 변동폭을 유로화 대비  $\pm 2.25\%$ 에서  $\pm 15\%$ (ERM2의 변동폭 반영)로 확대하였으나 동년 10월 crawling-peg 시스템을 폐지하고 관리변동 환율제도(변동폭 유지)를 도입함.
- 외환보유액은 1990년대에는 외채상환 부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외환보유 사정이 호전되어 2002년에는 외화표시 차입억제 및 유로화(보유외환 주종) 대비 달러화 약세로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함.
- 198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국면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1989년에는 관광수지 악화 및 이자지급 부담(6억 달러, GDP 대비 2%)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됨에 따라 국제수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소득수지는 외국기업의 이윤 본국 송금 지속으로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있는 실정임.

- 200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폭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이윤송금 및 배당지급, 정부의 해외차입에 따른 이자지급 증대로 소득수지 적자가 악화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8%대를 상회하였음.
- 2006년 이후 유로화 대비 Forint 환율은 250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화되었으나, 재정수지 및 대외거래 포지션 악화로 Forint는 국제금융시장 동요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며, 신흥투자시장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경색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Forint의 가치급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